

‘달빛열차’ 달린다 영호남 벽 허문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타면제·단선 일반철도로 건설
광주송정역~서대구 86분 걸려
인적교류·물류환경 큰 개선 기대
광주시장·대구시장 “조기에 건설”

영호남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줄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특별법은 빠르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경제성도 고려해 단선·일반열차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가 달리게 되면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86분 여만에 대구역에 도착할 수 있어, 양 지역의 인적교류와 물류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km의 영호남 연결 철도이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특별법은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에 따라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기대했던 복선화 대신, 단선으로 추진되고 고속철이 아닌 일반 철도로 건설된다. 이 같은 결정은 달빛고속철도가 총길이 198.8km 구간에서 10개 정차역이 설계돼 고속철도로서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광주에서 대구까지 시속 350km 고속철도의 운행 시간은 83.55분, 시속 250km 일반(고속화) 철도는 86.34분으로 2분여 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복선 기준)는 고속으로 설계시 11조2999억원, 일반 설계 8조7110억원으로 추산돼 격차가 크다. 2분여 빨리 가기 위해 고속철도로 설계하면 2조5889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또 터널, 선로 간격 등을 더 넓게, 높게 만들어야 해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데도 운행 속도 등 효과는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계류된 후 같은 달 21일야에 겨우 통과됐다. 당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과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대거 수정됐다.

달빛철도와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하고, 공항과 항만 등이 연결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광양항과 포항 영일만항 등과 철도가 연계돼 항만 활성화가 기대되고, 무안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연계성도 향상돼 거점공항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교통연구원엔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로 7조2965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283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676명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무엇보다 달빛철도 경유지 10곳 중 광주를 제외한 9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개발 촉진과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 영호남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해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공동 환영문을 내고 “2030년 가치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며 “영호남인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대구는 다음달 7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대구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과 홍 시장은 1단계 하늘길(군공항)과 2단계 철길(달빛철도)에 이어 3단계 산업동맹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지리산휴게소에서 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를 가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수검표 개표 시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오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선거대비 실무자반 선거 연수회에서 모의 투표용지를 이용한 수검표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이낙연 신당 비판 ‘파장’

“민주당 분열은 선거 실패” 호남의 절박한 민심 대변
지역정치권 “탈당·분당 이낙연, 분열 거론 자격 있나...”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이낙연 신당 창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은 물론 호남 지역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를 방문한 사이에 나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전남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신당이 생겨나고 있다”며 “다당제, 양당제 중 뭐가 좋을지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평상시, 즉 비선거철에 하는 얘기고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분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가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의 정치 행각 시점에서 신당 창당을 비판한 것은, 4·10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분열이 곧 선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호남의 절박한 민심을 대변한 것이 아니겠냐는 정가의 분석이다. 사실상 김 지사가 호남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의 말이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분열을 반대하는 김 지사의 발언은 향후 총선과 관련한 호남지역 여론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자리에서 ‘광주시민들의 이낙연 신당 반응이 안 좋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달라, 그러려면 분열돼선 안 된다, 정권 교체는 단합해서 하라”는 것은 광주시민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단합은 소중한 가치인 건 분명하나 좋은 단합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이 있는데도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는 단합은 나쁜 단합이다. 나쁜 단합으로는 국민 지지를 못 얻는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은 나쁜 단합

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분열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탈당 분당을 한 장본인이 분열돼선 안 된다는 시민의 염원을 이야기할 입장인지 되새겨 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남광주시장을 방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8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1년 6개월 동안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역민들로부터 70%를 넘나드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 신당 창당 반대 발언은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노후주택 누진 화재 ‘무방비’ ▶6면

복스 - ‘한국 도시의 미래’ ‘뚝뚝의 세계사’ ▶14·15면

광주FC, 태극 치앙마이서 우승 꿈 키운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